

사학연금

Teacher's pension magazine

09

Vol. 442

2023.September



고려승려경한

사학연금이 만드는 매거진

사학연금



표지이야기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본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바로 고려 승려 경한이 만든 직지심체요절입니다. 선선해지는 9월에는 직지심체요절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날도 있습니다. 바로 9월 4일 지식재산의 날입니다. 사학연금 9월호는 무엇보다도 소중하고 지켜야만 하는 지식재산에 대한 이야기로 꾸며보았습니다.

CONTENTS



발행인 송하중
발행일 2023년 9월 1일(비매품)
발행처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문의 061)338-0364
주소 (58326) 전남 나주시 문화로 245(빛가람동)
대표전화 061)338-0000
등록번호 나주 라 00010
등록일자 2006년 1월 12일
기획·디자인 승일미디어그룹(주)
연금업무 상담 1588-4110(유료)



공감

04

명언

고려부터 내려온 가르침
경한과 <직지심체요절>

06

만남

우리 모두가 누리고 지켜야 할 지식재산권
특허사무소 공안유 정성준 대표변리사

10

여행

세계 첫 금속활자가 탄생한 곳
청주 고인쇄박물관

14

짓다

- 사람(부모·교사)-사람(자녀·학생) 관계의 회복
- 칭찬의 힘
- 어머니께 드리는 글
- 가을이 마냥 좋다



소통

20

건강 식

입맛을 돋워주는
참나물무침

22

인생 책

탄소 중립을 위해
그들은 매일 어떻게 일하고 있는가?

24

지구 인

저탄소 식단으로 푸드 마일리지를 줄이고
지구와 나를 건강하게 지키자!

28

경제 톨

중고 제품? 저한텐 새 제품이예요!
'N차 신상' 열풍!

30

요즘 말

건강을 챙기는 당신에게 추천!
'오운완' 챌린지



알림

32

공단 소식

- 사학연금(TP) 경영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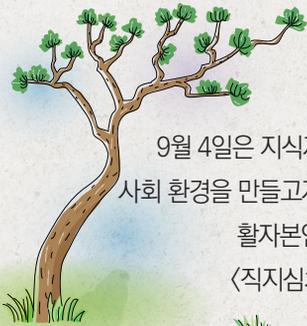
34

독자 마당

35

제휴 복지

고려부터 내려온 가르침 경한과 <직지심체요절>



9월 4일은 지식재산의 날이다. 지식재산권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고 지식재산을 존중하는 사회 환경을 만들고자 제정된 국가기념일로, 이 날짜는 2001년 현존하는 세계 최고(最古)의 금속 활자본인 <직지심체요절>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날이다. <직지심체요절>을 편찬한 고려후기 승려 경한이 남긴 깨달음과 그의 저서 <직지심체요절>에 담긴 가르침에 대해 알아보자.

정리 김민정

부처는 마음 안에 있다

경한은 전라도 고부(현재의 정읍시)에서 태어나 열 살도 되지 않았을 때 출가하였다. 전국의 유명한 사찰을 돌아다니며 수행을 하던 중 진리를 찾기 위해 중국으로 건너간 경한은 10여 년 동안 중국에 머물렀다. 불교 선종 5가 중 하나인 임제종의 선법을 전해 받아 귀국한 경한. 그는 선과 교는 이름만 다를 뿐 평등한 한 몸이라는 선교일체(禪教一體)를 주장하였다. 이는 고려 말 불교계에서 가장 포괄적인 불교관이였다.

경한이 편찬한 <직지심체요절>에서 직지심체(直指心體)는 직지인심견성성불(直指人心見性成佛)이라는 오도(悟道)의 명구에서 따온 것으로, 사람이 마음을 바르게 깨달았을 때 그 심성

이 바로 부처의 실체라는 뜻이다. 자신의 마음을 올바르게 가지면서 도를 깨우치면 자신의 마음이 곧 부처가 된다는 의미로 풀어서 말할 수 있다. <직지심체요절>은 바로 이 가르침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교리서다.

경한의 임종계와 무심선

승가의 장례문화 중 하나인 임종계는 세속에서 일컫는 유언과 비슷하다. 세상을 하직할 즈음에 수행으로 깨달은 것을 전하는 마지막 말이나 글을 의미한다. 경한은 77세의 나이에 오언십이구(五言十二句) 다시 말해 60글자나 되는 긴 임종계를 남기고 입적했다.



77년 전에 와서 77년 만에 돌아가노라. 곳곳이 모두 돌아갈 길이요
곳곳이 모두가 고향이로다.

무엇하러 배를 타고 노를 저어 유별나게 고향으로 가려 하는가.

이 몸은 본래 있었던 것이 아니며, 마음 또한 머무는 바 없도다.

이 몸을 재로 만들어 사방에 뿌리고 남의 땅을 차지하여 묻지 말라.

무심이란 대상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워진 상태를 뜻한다. 경한은 '어리석은 이는 경계만 버리려 하면서 마음은 버리지 않고, 지혜로운 이는 마음을 버리려 하고 경계를 버리려 하지 않으니 마음을 버리면 경계는 절로 고요해지고 경계가 고요해지면 마음은 절로 움직이지 않는다. 이것이 무심의 참뜻이다.'라고 말하기도 했을 정도로 무심선에 진심이였다. 그는 '심즉시불(心卽是佛) 즉 '마음이 곧 부처'라는 말을 따라 도를 행한 것이다. [▶▶](#)



우리 모두가 누리고 지켜야 할 지식재산권 특허사무소 공앤유 정성준 대표변리사

글 정미래 사진 한상훈



정성준 대표변리사와의 만남 인터뷰 영상은
하단 QR코드에서 확인하세요.



정성준 대표변리사
특허사무소 공앤유

지식재산권이란 표현물이나 발명품 등 '지식재산'에 대한 권리를 뜻한다. 과거에는 그리 중요한 개념이 아니었으나 최근에는 모두가 누리고 지켜야 할 권리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우리 모두가 제대로 지켜야 할 권리 지식재산권에 대해 특허사무소 공앤유 정성준 대표변리사를 만나 이야기해보았다.

안녕하세요. 변리사님. 먼저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성준입니다. 변리사시험을 통과한 후 2012년도부터 변리사로서 지식재산 관련 업무를 수행해오고 있습니다. 처음엔 특허법원에서 대기업과 공공기관 위주의 지식재산 출원, 심판 및 소송업무 뿐만 아니라 분석 및 컨설팅을 수행했습니다. 현재는 공인 특허사무소에서 중소기업 및 개인 클라이언트를 위주로 지식재산 서비스를 특화시켜 이들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먼저 대표님의 직업인 변리사는 어떤 일을 하는 직업인지 알고 싶습니다.

변리사는 사람의 지적산물에 가치를 부여하여 지식재산권이라는 권리로 전환시키고 지식재산권을 통해 그 지적산물을 보호하고 활용하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무형의 지적산물이 변리사의 손을 거쳐서 유형의 권리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그 권리는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으로 부르게 됩니다.

권리자는 지식재산권을 독점배타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한편, 지식재산권을 대중에 공개함으로써 대중은 지식재산권을 이용가능합니다. 지식재산권이 활용되면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산업도 발전하게 됩니다. 변리사는 사람의 지적산물을 권리화함으로써 사회를 이롭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대표님께서 주로 담당하시는 업무는 무엇인가요?

전자공학을 전공하여 반도체 통신을 비롯한 다양한 전자 분야를 두루 아우르면서 특허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인공지능 및 블록체인, 빅데이터 관련 4차 산업 분야도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특허 외에 콘텐츠 관련 브랜딩, 상표, 저작권, 및 지식재산 컨설팅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지식재산권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지식재산권은 무엇이며 왜 보장 받아야 하는 권리인지 궁금합니다.

지식이 중요해지는 사회가 되면서, 지식재산권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본주의에서 지식이 중요해진다는 것은 지식 또는 지적산물이 경제적 가치를 지닌다는 것입니다.

지적산물에 경제적 가치를 부여하려면 명확하게 대상이 특정되어야 하는데 지적산물은 무체물의 특성상 그 내용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서 특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적산물이 무엇인지 내용을 특정하고 어디까지인지 경계를 지정하여 범위를 특정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 특정된 지적산물이 특허청의 심사를 통과하면 비로소 지식재산권이 탄생하게 됩니다.

지식재산권의 대표주자인 특허권, 상표권 및 디자인권은 이러한 권리화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렇게 탄생된 지식재산권은 권리자에게 다양하게 활용되며 경제적 이득을 가져다줍니다. 권리자는 자신의 지적산물을 지식재산권이라는 권리로 탄생시킨 뒤에, 해당 내용과 범위에 맞게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타인의 무단사용을 제재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에게 라이선스를 주거나 팔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인간의 지적산물은 지식재산권을 통해서 경제적 가치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보호되어야 합니다.

일반인들은 자신도 모르게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침해당하기도 합니다. 일반인들이 특히 유념해야 할 지식재산권에 대한 지식은 무엇일까요?

지식재산권은 여러 종류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산업재산권에는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이 포함됩니다. 기본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나 개인의 입장에서 모든 지식재산권을 고려해야 합니다. 즉 우리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다양

한 지식재산권으로 보호하고, 우리의 제품이나 서비스가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지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사업의 특성상 중요도는 다를 수 있습니다.

브랜드나 마케팅 관련 기업이라면, 상표권, 디자인권 및 저작권 등이 중요하고, 콘텐츠 기반 기업이라면 상표권, 저작권 등이 중요하고, 기술이 적용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라면, 특허권의 중요성이 더욱 높을 것입니다.

여기서 일반인들이 자신도 모르게 침해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으로는 저작권이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에서 검색할 수 있는 글이나 사진 등을 가져와서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용도나 공공저작물의 경우에는 자유롭게 활용하는 예외가 있지만, 원칙적으로 상업적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원작자의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침해의 판단이 애매하다면, 안전하게 창작자에게 미리 허락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 많은 이들이 인터넷 공간에서의 지식과 자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다른 이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침해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좋을까요?

고의여부와 무관하게 지식재산권의 침해는 성립합니다. 따라서 과실로 침해가 발생하더라도 침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침해를 주장하는 권리자나 침해의 주장을 받는 제3자 모두 어떠한 조치를 취하기 이전에, 침해가 맞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침해가 성립되어야만 후속 조치들이 유효하기 때문에 선결적으로 침해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동안 침해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우선 중지해야 합니다. 혹여 나중에 침해인 것으로 판정되면 침해행위가 그 만큼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사자가 침해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어려우니, 저와 같은 변리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침해에 대한 내용증명(경고장)을 받는다고 해서 위축될 필요는 없습니다. 내용증명은 법적구속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식재산권은 보호받아야 할 중요한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지식재산권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식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첫 단추는 지적산물을 권리화라는 작업을 통해 지식재산권으로 탄생시키는 것입니다. 지식재산권이 존재해야만 이를 토대로 권리행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렵게 획득한 지식재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것입니다. 권리자는 지식재산권의 내용과 범위에 맞게 실시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실시하도록 하여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냄으로써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자신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타인을 제재함으로써 지식재산권을 존중하는 풍토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변리사로 활동하시면서 뿌듯했던 일이나 보람찼던 일,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소개해주세요.

고객 중에 외부에서 투자를 유치하려는 데이터 분석 솔루션 개발 업체가 있었습니다. 특허아이템을 발굴해서 신속한 특허등록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연구원들은 이전에도 특허진행 경험이 있었는데 그 때 대응이 어려웠고 결국 거절되어 특허취득이 매우 어렵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선 기업에게 조기등록을 위한 프로세스를 설명 드리고, 특허아이템을 찾기 위해 브레인스토밍 회의를 거쳤습니다. 릴레이 회의에서 기업이 가지고 있던 데이터 분석 노하우나 차세대 사업 관련하여 여러 아이템을 선정했습니다. 선정된 아이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명세서를 작성하여 특허출원을 진행하였고, 순차적으로 3달에 걸쳐 수십 개의 특허출원을 완료했습니다.

이후 조기심사를 통해 3개월이 지나면서 특허청으로부터 답변이 왔고, 심사관과의 면담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등록을 조기에 이끌어냈습니다. 1년도 안되는 기간에 수십 건의 특허권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특허에 대해 무관심했던 기업이 특허를 비롯한 지식재산

권을 획득하는 것이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인식을 가지게 되었고, 지식재산에 대한 접근성을 낮췄다는 점에서는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학연금> 독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현실적으로 개인이나 중소기업은 지식재산에 대한 관심이 적거나 지식재산의 수혜를 받기 어려운데, 지식재산은 기업의 입장에서 우선순위가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지식재산이 당장에 직접적으로 매출을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상품에 지식재산이 결합되지 않으면, 타인의 모방을 막을 수 없고 이에 대응할 수도 없습니다. 사전대비 없이 지식재산 분쟁에 휘말리면 적지 않은 손해가 발생합니다. 소상공인의 대표 메뉴의 이름을 무단으로 상표로 등록하여 실제 소유자가 사용할 수 없게 된 사건만 보아도 간단한 상표등록만으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상품에 한 두 개의 특허권이나 상표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타인에게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안전장치로서 불필요한 분쟁을 막을 수 있고 타인의 모방의지를 꺾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정보의 비대칭성 및 비용 때문에 지식재산 분쟁의 사전대비도 곤란합니다. 지난 경험에 비추어 봐도 어느 중소기업이든지 크고 작은 지식재산 분쟁을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인식하에, 중소기업에 알맞은 지식재산 서비스를 계속 발굴하고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목적 및 용도에 맞는 지식재산 획득 전략, 지식재산 이전 및 거래와 같은 활용 전략,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에 맞는 지원사업 매칭 및 컨설팅, R&D 전략 수립과 분쟁 대비를 위한 지식재산 조사 및 분석에 대한 서비스가 꾸준히 개발되어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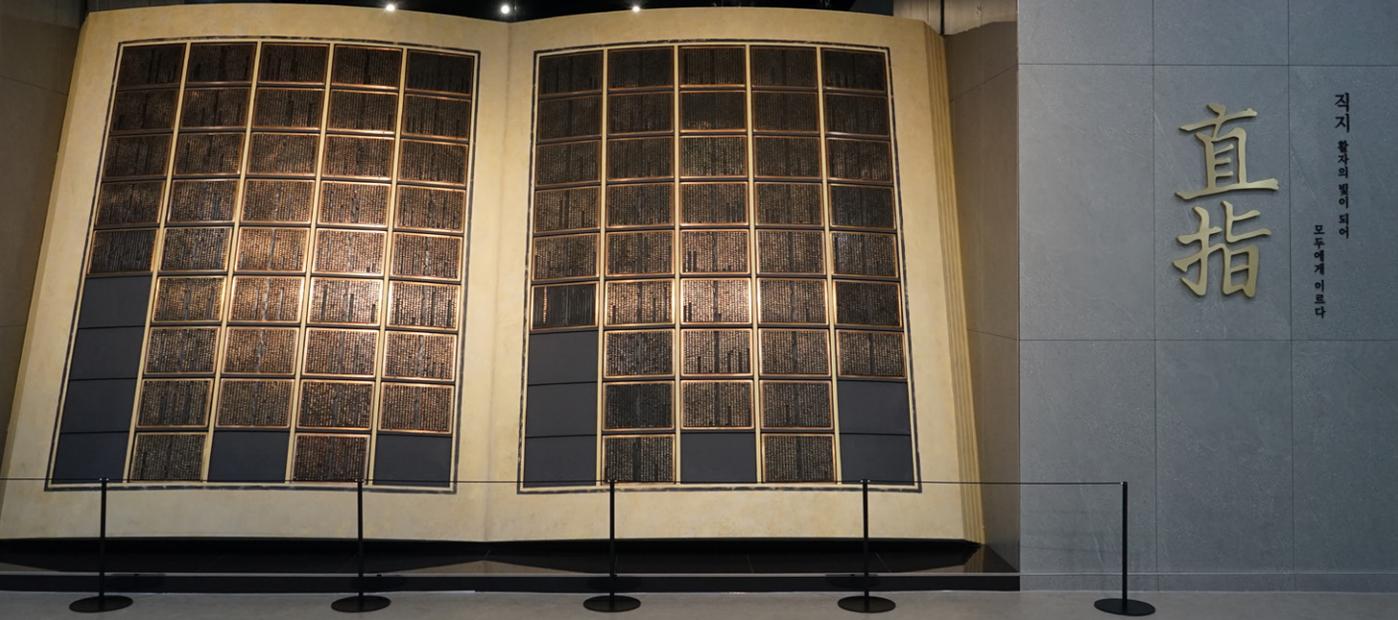
세계 첫 금속활자가 탄생한 곳
청주 고인쇄박물관





현존하는 금속활자본 중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백운화상초록불조 직지심체요절>, 줄여서 <직지>. 2001년 9월 4일에 그 가치를 인정받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면서 2018년에는 이 날을 지식 재산의 날로 지정하기도 했다. 등재와 동시에 청주는 일찍이 고인쇄 출판문화가 자리 잡은 도시라고 인정받게 되었다. 고인쇄박물관은 <직지>를 인쇄한 흥덕사지에 개관해 30년이 넘는 시간동안 선조들의 위업을 전하고 한국의 인쇄문화 발달사를 익히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정리 김민정 사진제공 청주 고인쇄박물관



1전시관 / <직지>와 고려시대 금속활자

1층에 위치한 1전시관은 한국의 금속활자에 대한 의의와 가치를 소개하는 곳이다. <직지>를 중심으로 하는 고려의 금속활자 인쇄술, <직지>를 인쇄한 흥덕사와 관련된 자료를 전시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직지를 만나다', '청주와 직지', '직지의 탄생과 여정', '흥덕사', '활자로 태어난 직지', '영원히 빛날 직지', '유네스코 직지상'의 구성이다. 입구에 들어서면 <직지>의 상·하권 활자판 78개에 들어갈 금속활자 3만여 개를 전통 주물기법인 밀랍주조법으로 복원하여 책 모양으로 배열한 조형물이 반겨준다. 이를 시작으로 1전시관에서는 <직지>를 인쇄한 청주의 문화와 역사, <직지>가 프랑스로 건너가게 된 경위와 현재에 대해 알아볼 수 있다. 또한 금속활자를 주조할 때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밀랍주조법의 전 과정을 살펴보거나 <직지>의 전문을 읽을 수 있는 e북도 지원 중이다.

2전시관 / 한국의 전통 인쇄문화

1전시관 옆에 나란히 놓여있는 2전시관에서는 고려의 목판인쇄술에서 시작해 19세기 말까지의 우리나라 전통

인쇄문화를 소개한다. 크게 '고려시대', '조선시대', '활자의 주조와 조판' 세 가지로 전시가 나뉜다. '고려시대' 전시에서는 우리나라 인쇄문화의 시작점부터 고려시대 목판인쇄까지에 해당하는 <무구정광대다라니경>, <묘법연화경> 같은 여러 고서와 유물의 복원판을 만나볼 수 있다. 또한 파리에서 <직지>를 발견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시킨 1등 공신 박병선 박사의 일대기도 확인 가능하다. '조선시대'에는 목판, 목활자, 금속활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인쇄한 조선시대의 고서들이 전시되고 있다. 당시에 활자의 주조를 관장하던 주자소의 모습도 함께 관람할 수 있으며 동활자를 이용해 인쇄한 <주자대전>, <동국여지승람> 등이 이곳에 전시 중이다.

'활자의 주조와 조판'에서는 밀랍주조법과 주물사주조법 등을 활용한 금속활자 주조와 조판을 다룬다. 밀랍주조법은 밀랍으로 된 판형에 자본을 뒤집어 붙이고 글씨를 양각으로 새겨 어미자를 만든다. 그리고 어미자를 하나씩 다듬어 밀랍봉에 붙이고 이를 틀에 넣어서 녹인 다음 쇠물을 부어 만드는 방식이다. 반면에 주물사주조법은 밀랍이 아닌 나무를 이용해 어미자를 만든다는 차이가 있다.

자본을 뒤집어 붙이고 양각으로 글씨를 새긴다는 것은 같으나 녹인 자리에 섯물을 부어 만드는 밀랍주조법과 달리 주물사조주법은 주물토에 어미자를 붙인 가지판을 매몰했다가 빼내고 그 자리에 섯물을 부어 활자를 만드는 방식이다. '활자의 주조와 조판' 전시에서는 이 과정을 디오라마를 이용해 소개하고 있다.

3전시관 / 동양과 서양의 인쇄문화

계단을 이용해 2층으로 올라가면 동·서양의 옛 인쇄문화를 소개하는 3전시관이 나온다. 앞선 전시관에서 다루지 않았던 목활자 조판과 목판 제작, 한지 제작 등 우리나라의 다른 인쇄 관련 전시뿐만 아니라 일본·중국·유럽의 인쇄문화도 전시 중이다. 특히 요하네스 구텐베르크가 인쇄한 <구텐베르크 성서>와 그가 발명한 인쇄기의 축소모형도 전시되어 있어 서양의 금속활자 인쇄가 <직지>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당시 유럽에서는 양피지를 사용하였는데, 얇고 질겨서 살짝만 눌러도 인쇄가 가능한 한지와 달리 양피지에 인쇄를 하기 위해서는 강한 압력이 필요하다. 때문에 요하네스 구텐베르크는 양조장의 와인 압착기에서 착안하여 인쇄기를 만들었다. <직지>가 인정되기 전까지는 <구텐베르크 성서>가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본으로 알려져 있었다.

<직지>가 시작된 곳, 흥덕사지

고인쇄박물관 건물 옆에 위치한 청주 흥덕사지는 통일신라시대에 지어져 고려 후기까지 명맥을 이어온 것으로 추측되는 절터다. 1985년 이뤄진 발굴조사를 통해 금당



터, 강당터, 탑터와 이들을 둘러싼 회랑터의 일부가 발견되었으며 현재 세워진 건물은 발굴 결과를 참고하여 금당과 삼층석탑을 복원한 것이다.

이때 '흥덕사'라고 새겨진 청동금구 조각이 함께 출토되어 절의 이름을 알게 되었다. <직지>의 말미에 적혀있는 이름과 일치한다는 점에서 <직지>가 인쇄된 곳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것. 덕분에 <직지>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됨과 동시에 흥덕사지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본을 인쇄한 곳으로 가치를 인정받았다.

인쇄술이 발명되기 전의 인류는 책을 손으로 직접 베끼는 방법으로 정보를 전달했다. 하지만 이는 오탈자 발생률이 높다는 단점이 있다. 그렇기에 인쇄술은 인류의 문화 발달에 있어 가장 큰 공헌을 했다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 주말에는 <직지>의 가치는 물론이고 우리나라의 인쇄문화가 어떻게 발전해왔는지 배울 수 있는 고인쇄박물관에 방문해보는 것은 어떨까. 📖



청주 고인쇄박물관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 713
문의	043-201-4266
관람료	무료
관람 시간	연중 09:00~18:00(신정·설·추석 당일 14:00까지)
휴관일	매주 월요일
홈페이지	https://cheongju.go.kr/jikjiworld/index.do

사람(부모·교사)-사람(자녀·학생) 관계의 회복

글 팽영일(동서대학교 퇴임)

요즘 뉴스에서 학생의 교사 폭행, 교사의 극단적인 선택 등으로 인한 학생인권과 교사의 교권을 둘러싼 여러가지 논의들이 보도되고 있으나 별 뾰족한 방안을 찾지 못한 채 설왕설래 하는 것 같다. 문제 자체가 다양한 요인들이 얽혀 있는 보통 쉬운 문제가 아니니 그럴 수밖에 없게 마련이다. 그럼에도 우선 법적인 접근에 매달려 해결책을 찾으려니 쉽지 않은 게 당연하다.

일부에서는 학생인권조례를 또 다른 편에서는 아동학대법을 그리고 여야는 서로에게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정치적인 집단적 이해관계에서 접근하고 있는 우려가 드는 건 몇몇 사람의 걱정에 그쳤으면 좋겠다.

모든 문제를 원점에서 보고 처음부터 차근차근히 하나하나 접근해 나가야 될 문제이다. 이 문제는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환경에서 무엇을 보고 들으며 자라는가? 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부모가 자녀교육에 거는 기대의 문제요, 교사의 교육권의 범위에 관한 교육철학과 우리 사회가 교사의 교육권을 어떻게 보장하고, 어느 범위 내에서 지켜 주는가? 의 문제기도 하다.





따라서 이 문제는 근시안적인 해결책이나 접근으로는 일시적인 미봉책에 그치게 되고 말 것이다. 이 문제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의 문제요, 교육적 관계를 토대로 한 부모-자녀의 문제요, 교사-학생의 문제이다.

특히 최근에는 가정에서조차도 자기 자녀를 제대로 가르치기 어려움을 느끼는 부모가 많은 것 또한 사실이다. 따라서 부모의 자녀교육에 관한 권한을 어느 범위까지 가지며, 이 권한을 제대로 어떻게 사용하는지의 문제와도 연계되어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언론의 보도에서처럼 학부모가 학교교육에 관여하는 정도가 과도하여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학부모가 내 자녀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교사를 고발하는 현실에 부딪히게 되면 교사의 교육권한은 한없이 위축되고 만다.

그동안 우리들은 교사는 부모와 같은 사랑(교육애) 과 열정을 지니고 부모의 심정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부모와 자녀는 교사를 존경하고 신뢰하며, 많은 권한을 교사에게 일임하는 교육적 전통을 지녔다. 이에 따라 부모와 자녀의 교사에 대한 존경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교육적 관계가 교육활동의 토대가 되었다.

이러한 관계를 바탕으로 한 교사-학생의 관계가 교사의 교육활동에 새로운 활기를 회복할 수 있는 기초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교사에게 주어지는 교육적인 권한은 교육 전문성과 교육애를 바탕으로 하여 주어지는 것이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과제는 어떻게 이러한 신뢰와 존경, 사랑과 전문적 지도력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

학교에서 교육이 사라지고, 입시지옥이 있다는 말이 던져주고 있는 것처럼 이제 우리들이 다시 되찾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학교·부모·국가·사회 모두가 심각하게 반성해야 할 때인 것 같다. 교육의 문제는 우리 모두의 문제이다. 오로지 자녀의 올바른 성장에 도움이 되는 게 무엇이고, 이를 위해 우리들이 서로 협력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한다. 이 일이 가장 중요함을 깨닫고,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서로 양보하고, 협력해야만 문제 해결을 위한 출발이 될 수 있다.

아직도 나만의 유익 추구에 집착하여서는 결코 해결책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을 주지해야 한다. 내 자녀를 위한다는 구실로 나만의 유익함을 추구하지 말고, 한시바삐 우리 모두 우리들의 자녀들을 위해 무엇이 최선일까? 라는 생각하며 서로 함께 협력해야 한다는 마음부터 되찾아야 한다. 

칭찬의 힘

글 박일(동천고등학교 퇴임)

그까짓 것 싶었다. 현직에 있을 때 골프는 귀족운동(?)이었다. 감히 넘보지 못했다. 새천년이 들어서고 퇴임할 무렵이 되니까 ‘골프연수’도 생기면서, 교사들도 귀족으로 변신해도 좋다고 했다. 아니, 골프도 귀천을 따지지 않는 운동으로 변했겠지만.

가만히 놓여있는 공 하나 그것도 못 칠까 싶었다. 골프가 안 되는 이유가 108가지 있다고 한다. ‘그까짓 것’하고 쉽게 생각한 것도 해당되겠지만, 늦게 배운 것도 이유 중의 하나가 아닐까?

퇴임 후, 골프도 칠 수 있는 여유가 나를 풍요롭게 한다. 골프를 칠 수 있는 건강도 있지만, 친구들과 어울려 해외에도 싸돌아다닐 정도니까 이만하면 족하지 않은가. 소방수와 맹인이 싸우면 맹인이 이긴다고 하던가. 물불 가리지 않으니까. 내가 그랬었다.

겉 없이 휘두를 때는 골프가 잘 되었다. 그때는 그래도 좀 젊었을 때라서 그랬겠지만, 점점 비거리도 줄어들면서 골프의 형태도 자꾸만 쪼그라들고 있는 게 사실이다.

현상유지도 어려워지면서 자신감도 잃어가고, 스트레스 받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 이제 그만 두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한다. 정교함도 없어지니까 OB도 잦아지고, 동행하는 친구들에게 미안해지기도 한다. 그러나 그만 둘 수가 없다. 친구가 나를 옹호하고 있으니까?

“왜 이리 안 되지?”

불평 아닌 불평도 털어놓는다. 친구가 답한다.

“골프는 내가 잘해. 40여 년 쳤으니까. 너는 문학가 아냐? 그 분야에서는 인정받고 있지 않은가. 그러면 됐지.”

너는 한 분야의 전문가니까 골프를 좀 못 칠 수도 있다는 거다. 그게 골프와 무슨 상관이 있는냐는 투다.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골프는 계속해야 한다는 거다. 칭찬은 자신감과 동기부여라지만, 그렇다고 기량이 쑥 올라가는 것도 아닌데 말이다.

요즈음은 칭찬의 격도 달라졌다.

“부산광역시 문화상(문학부문)을 수상한 자와 동행하니, 우리 클럽의 격조가 한층 높아졌어.”

가장 효과적인 칭찬은 진심 어린 칭찬이라던가. 표면적인 칭찬보다는 상대방이 정말로 노력하고 성취한 부분을 인정하며, 그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 말이다.

영국 심리학자 하드필드 박사는 자신감에 관해 평생 연구한 분인데, “아무리 뛰어나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일지라도 ‘너는 틀렸어’,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해도 안 돼’라고 10번만 들으면 자신의 능력을 30%도 발휘할 수 없다”고 했다.

지구 역사상 30%의 능력을 발휘해서 성공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반대로 “넌 할 수 있어”, “넌 특별한 사람이야”, “네가 있어서 행복해”라고 자신감을 심어주면,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 무려 500%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하지 않았는가.

친구의 칭찬이 골프를 그냥 두지 못하게 한다. 30%의 기능 밖에 없지만 500%의 능력을 가진 것처럼 말해주고 있지 않은가. 물론 다른 분야의 능력으로 자신감을 갖도록 하면서 필드로 향하게 하는 그 지혜와 말본새도 고맙기 그지없다.

연습이 완벽을 만든다고 하지만, 연습도 거기서 거기인 걸 어떻게 해야 하나. 하루해가 무심하게 흘러간다. 



어머니께 드리는 글

글 박성훈(세종대성고등학교 퇴임)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머니
 제 어린 시절 아픈 몸에도 가족을 위해 고생하시느라
 힘들고 지쳐하셨던 어머니
 평생 아프신 날이 더 많았던 나의 어머니
 어머니 생각하며 늘 무거운 마음
 편치 않는 마음이었습니다.
 자녀들에게 폐가 된다며 항상 어려워 하셨던 어머니
 난 그 어머니에게 참 빛이 많습니다.

못난 아들 잘되라고 하셨던 어머니의 마음 여러 가지
 일들이 생각납니다.
 자식을 위해 학교에 다녀가시고도 말이 없으셨던 어머니
 군에 있는 자식 생일에 떡을 해 오신 어머니
 교생실습을 선생님이라도 된 듯 좋아하신 어머니

못난 자식의 사소한 일에도 기뻐하시던 어머니
 아픈 몸으로 손자들 봐준다고 오셔 큰 병을 얻으셨던
 어머니
 그런 어머니께 뭘 해드렸나 생각해봐도 떠오르질 않습니다.
 난 참 이기적인 자식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에 그저 무관심했던 자식입니다.
 어머니는 늘 자신의 아픔에도 자손들의 안위와 축복을
 위해 쉽 없이 기도하던 어머니
 너무나도 고통스러워하시던 어머니를 그저 안타까움으
 로만 바라보던 제게
 자식들 고생된다고 따뜻한 봄날 가고 싶다고 하시던 어머니
 얼굴 한 번 더 뵈지 못한 것이 죄송스럽습니다.

하루 밤이라도 어머니 옆에서 더 자고 올걸 그랬나
 싶은 생각에 눈물이 자꾸 흐릅니다.
 그래도 그 심한 고통에서 해방되었다 생각하니 다소
 위안이 됩니다.

이제 하늘나라에 가서서 아버지도 만나 뵈고
 아프지 않은 편안한 천국 누리시길
 이 자식 기도하고 또 기도해 봅니다.

어머니 이제 제 꿈에 오세요.
 매일 오셔서 이제 아프지 않으실 테니 지난 얘기 나누며
 편안하게 다녀가세요.
 어머니가 많이 보고 싶을 거예요.
 한동안 울고 살지 않을까 싶네요.
 벌써 이리 아쉽고 보고 싶은데~

민혁이 하고 형우 장가보내고 가고 싶다하시더니
 아픈 몸으로 견디시며 기다리시느라 힘드셨을 생각하니
 하늘나라 가서서 아버지께 기쁜 소식 가져가시려 그러
 셧나 봅니다. 어머니
 하늘나라 가시기 전에 꼭 제게 다녀가세요. 어머니
 어머니 감사했습니다.

그 동안 곁에 계셔 주어서 고맙습니다.
 편안히 쉬시길 바라며~

2023.3.24. 금요일 밤 둘째 아들 

가을이 마냥 좋다

글 김선호(광주서석고등학교 퇴임)

강독을 따라 들국화 필 무렵
야생화 전시회 초대 손님인 듯
늘 은근슬쩍 찾아오는
가을이 마냥 좋다

가을 들녘을 맴도는 고추잠자리
온갖 들꽃과 교감을 하고
담장 너머 주렁주렁 열린 대추는
가을 햇볕에 붉어만 진다

한들거리는 코스모스와 억새
바람 잠잠할 때 키 재기를 해대는
키떡다리 가을 꽃길을
깡충대는 길을 하며 걷고 싶다

흰 구름 피었다 사라지는 강물엔
틔새인 양 철새들이 유명하고
오색단풍으로 온 산이 물들어가니
가을빛은 곱기만 하다

밤들 푹푹 떨어지는 소리에
화들짝 놀란 다람쥐 줄행랑치듯
늘 미련 없이 떠나가는
가을이 마냥 좋다



입맛을 돋워주는

참나물무침

글 한승희



늦여름과 가을 사이, 봄의 맛을 만나고 싶다면? 그런 사람들에게 참나물을 추천한다. 8~9월이 제철인 참나물은 셀러리와 미나리를 합친 듯한 향기를 가진 채소다. 당근에 풍부한 베타카로틴이 참나물에도 다량 함유되어 있어 눈 건강에 좋다. 외에도 칼륨, 칼슘, 인 등 무기질이 많은 알칼리성 식품이기 에 고기와 함께 먹을 때 산성 성분을 중화시켜 공합이 좋기도 하다. 오늘은 참나물을 살짝 데쳐서 조리하여 부드 러움과 향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참나물 무침을 소개한다.



주 재료

참나물 150g, 소금 1/2스푼,
다진 마늘 1/2스푼, 다진 파 1스푼,
간장 1스푼, 참기름 1스푼, 통깨 약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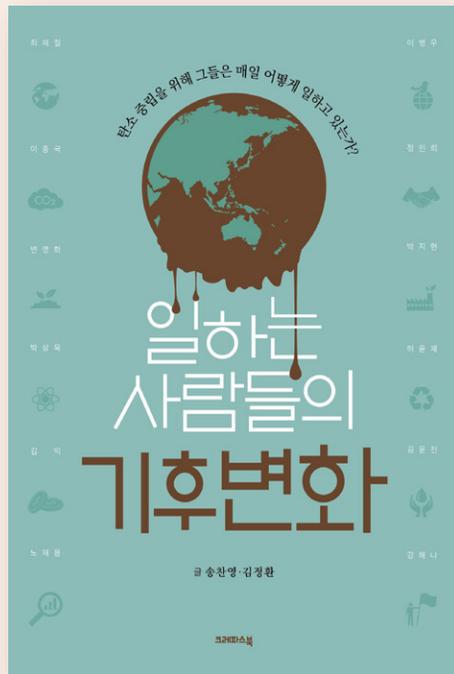
만드는 법

1. 흐르는 물에 참나물을 깨끗이 씻고 줄기와 잎으로 나누어 잘라준다. 이때 식초 물에 5분 정도 담가두면 살균 세척 효과가 있어 좋다.
2. 냄비에 물을 넣고 끓기 시작하면 소금을 넣는다.
3. 참나물을 줄기 부분부터 넣어 30초~1분간 살짝 데친다.
4. 데친 후 건져낸 참나물은 즉시 찬물에 행군다.
5. 참나물의 물기를 짜내고 볼에 담아 다진 마늘, 다진 파, 간장, 참기름을 모두 넣어준다.
6. 조물조물 무쳐내고 접시에 담은 후 통깨를 솔솔 뿌려주면 완성! 

탄소 중립을 위해 그들은 매일 어떻게 일하고 있는가?

책 <일하는 사람들의 기후변화>

제공 크레파스북



*본 도서는 '크레파스북'에서 협찬 받은 도서로 이벤트를 통해 5분께 증정합니다.

새들은 아름다운 목소리로 지구의 위기를 경고하고 있다!

지구 온난화로 북극 얼음과 툰드라 눈이 녹고, 온대지역이 아열대로 기후가 변하고 있는 가운데 새들의 서식지는 계속해서 북쪽으로 옮겨가고 있는 듯하다. 남방계 한계선이 북쪽으로 더 올라간다면 겨울에 볼 수 있던 두루미를 더 이상 볼 수 없게 될 것이다. 더 큰 문제는 기후변화의 속도가 너무 빨라서 북쪽으로 이동하더라도 아예 살기 어려운 환경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새가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단지 아름다운 새소리를 듣지 못하거나 두루미의 멋진 날갯짓을 보지 못하는 아쉬움에 그치는 것일까? 그 끝은 대멸종일 가능성이 높다. 탄광 속 공기가 오염되면 카나리아가 운다고 한다. 새들은 아름다운 노랫소리로 기후변화의 위기를 경고한다.

2023년 현재 대한민국에 필요한 변화는 무엇일까? 정체되어 가는 성장과 활력, 쌓여가는 사회적 모순과 이로 인한 사회와 개인 삶의 부정적인 변화는 어찌 보면 현대의 일상적인 일이 되었다. 더불어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는 한국의 미래사회 시스템과 개인의 직업 선택에도 더욱 복잡한 숙제를 안겨 주고 있다.

그렇다면 미래 한국 사회의 중추가 될 현재 MZ 세대는 가까운 시점에 선택하게 될 본인 일의 정체성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 더욱이 아직 선택해서 경험하지 않은 일이라면.

기후변화는 과학과 기술의 영역뿐 아니라, 경제,

산업, 무역, 사회, 인권, 지정학의 영역이다. 또 그 해결을 위해 우리는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그린뉴딜, 에너지 전환, ESG 등 여러 새로운 방향성에 도전하고 있다.

일로서의 기후변화, 기후 위기 최전선에서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

『일하는 사람들의 기후변화』에서는 기후변화 각 분야에 오래도록 천착해 오며, 또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 가는 전문가들을 만나 매일의 '일'로서 어떤 생각과 고민을 하고 무슨 일을 실제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일의 정체성을 찾아보고자 한다.

12인의 전문가들은 기후변화 각 분야에서 혁신하고 기회를 만들고 세계 각국에서 도전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이 본인의 일을 하게 된 계기와 그 일의 전망, 분주한 하루 일상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고 소통하는지, 그들이 바라본 2050년 탄소 중립의 가능성과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 그리고 미래 세대에 대한 조언까지.

기후변화는 지구와 미래 세대에게 위기를 안겨 주었지만, 한편으로는 새로운 기회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고, 글로벌 협력을 함께 하며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있다. 기후 문제는 환경 문제를 넘어 경제 문제의 돌파구가 되고 있고, 개발 협력을 위한 새로운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다. 12인의 전문가들은 위기 속에서 발견한 새로운 기회, 기후변화에서 답을 제시하고 있다. 

지은이 송찬영, 김정환
출판사 크레파스북
발행일 2023년 3월 20일

정가 17,000원
ISBN 979-11-89586-62-1(03300)



저탄소 식단으로 푸드 마일리지를 줄이고 지구와 나를 건강하게 지키자!

올해 여름은 유난히 더웠다.

9월이 되었지만 더운 기운은 여전히 우리를 지치고 힘들게만 한다.

지구 여러 곳곳에서는 온난화로 인한 피해를 입었고, 우리나라 역시 긴 장마와 더위로 몸살을 앓았다.

나날이 더워지는 지구와 나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저탄소 식단과 푸드 마일리지, 로컬푸드에 대해 알아본다.

글 정미래



내 건강에도 좋고 지구에도 좋은 저탄소 식단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 문제인 것이 바로 탄소배출이다. 우리는 물론이고 우리의 후세가 지구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탄소배출을 줄이는 것이 당연히 필요하다. 그리고 전 세계가 이러한 노력에 힘을 쓰고 있다.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1/3가량을 차지하는 배출원이 무엇일까. 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먹거리 관련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31%를 차지한다고 한다. 어마어마한 양의 이산화탄소가 우리의 먹거리를 통해 발생되고 있는 것이다. 먹거리 부분에서 이산화탄소가 많이 발생하는 만큼 탄소배출을 줄이는 것은 당연하고 시급한 문제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 바로 '저탄소 식단'이다.

저탄소 식단은 탄소배출량이 많은 육류 섭취를 지양하고 채소 위주로 식단을 꾸리는 것을 말한다. 축산시설에서 배출되는 탄소가 채소를 기를 때 배출되는 탄소량보다 많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육류 섭취를 하지 않고 채소만 섭취하는 것만이 올바른 저탄소 식단이라고 볼 수 없다. 톡톡하게 구성하면 더 맛있고 즐겁게 저탄소 식단을 즐길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하는 두 가지가 바로 '푸드 마일리지'와 '로컬푸드'다.



마일리지가 쌓이면 좋다? 푸드 마일리지는 적은 게 좋다!

과거에는 외국의 식재료나 음식을 맛보기 어려웠지만 최근에는 언제 어디서든 마음만 먹으면 원하는 식재료를 구하고 전 세계의 요리를 먹을 수 있다. 모두 하늘과 바다를 통해 식재료가 유통되기 때문이다. 다양한 식재료를 즐길 수 있다는 것은 즐거운 일이지만 식재료가 우리의 식탁으로 오는 여정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탄소가 많이 발생한다. 이를 '푸드 마일리지'라고 한다.

푸드 마일리지는 식품이 생산지에서 운송과 유통과정을 거쳐 소비자의 식탁에 오르는 과정에서 탄소 발생 등 환경부담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다. 그렇기 때문에 이동거리가 길어질수록 푸드 마일리지가 커진다. 먼 해외에서 운송되는 식재료는 당연히 푸드 마일리지도 큰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꾸준히 푸드 마일리지가 커지는 나라 중 하나다. 그만큼 우리의 밥상을 차지하는 수입 식자재가 늘고 있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푸드 마일리지를 줄이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 푸드 마일리지를 줄이기 위해 가장 좋은 것은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 로컬푸드를 애용하는 것이다.

우리 것이 좋은 것이여! 로컬푸드

로컬푸드란 장거리 이동과 여러 단계의 유통과정을 거치지 않고 지역에서 생산한 먹거리를 그 지역에서 소비하는 먹거리 유통 문화를 말한다. 보통 반경 50km 이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지칭한다.

로컬푸드는 장점은 여러 가지다. 운송 거리가 짧아 보존료를 사용하지 않아도 식재료가 신선하다. 긴 운송 중에는 신선도를 높이기 위해 식품첨가물인 보존료를 사용한다. 보존료는 우리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기에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 게다가 로컬푸드는 언





제, 어디서, 누가 생산한 농산물인지 알 수 있어 안전하다. 또 중간 유통비가 줄어오니 더 값싼 가격으로 싱싱한 식재료를 맛볼 수 있는 것이다.

로컬푸드를 이용해 식사를 차리면 자연스럽게 저탄소 식단을 꾸릴 수 있다. 먼 해외에서 온 식재료보다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우리 농산물의 푸드 마일리지 가 훨씬 적기 때문이다.

소비자뿐만 아니라 농업인에게도 이득이다. 경작 규모가 작은 농업인들은 안정적인 판로를 찾는 데에 어려움을 느끼는데, 로컬푸드가 활성화 되면 판로가 안정적이고, 일정한 소득이 보장되기 때문에 지역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장점이 많은 로컬푸드를 어디서 구매할 수 있을까? 방법은 어렵지 않다. 내가 사는 곳 인근에 위치한 로컬푸드 직매장이나 대형마트에 자리한 로컬푸드 코너를 이용하면 된다. 직접 장을 보러 가기 어려운 이들을 위해 각 지역별 온라인 로컬푸드 쇼핑몰도 많다. 로컬푸드가 우리집으로 찾아오는 것이다.

또 하나의 팁은 우리 집 베란다나 텃밭에 소규모로 내가 먹은 채소를 직접 길러보는 것이다. 최근에는 쉽게 기를 수 있는 방법도 많아 새로운 취미생활로 자리 잡고 있기도 하다. 보람도 있고 건강에도 좋으니 1석2조라고 볼 수 있다.

우리는 매일 식사를 하고 있지만 식사로 인해 얼마나 지구에 많은 탄소가 배출되고 있는지는 알지 못한다. 한 끼를 먹을 때에도 지구를 기억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식단을 꾸려보는 건 어떨까. 지금이라도 저탄소 식단, 푸드 마일리지, 로컬푸드를 기억하여 지구와 더불어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보자. [f](#)

중고 제품? 저한테는 새 제품이에요! 'N차 신상' 열풍!

물건을 바라보는 생각의 전환



“스마트폰을 살 때 100만 원이 들었지만
30만 원에 되팔 수 있으니깐 70만 원에 산 셈이야.”



“오래된 기종이라서 싸게 판다니.
사용감이 거의 없어서 새것이나 다름없는데, 황재했어!”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해본 사람은 없다.” 바로 중고 거래를 두고 하는 말이다.
 그만큼 중고 거래가 활성화된 요즘, 중고 제품은 단순히 ‘남이 사용했던 헌 물건’으로 취급되지 않는다.
 여러 사람의 손을 탔어도 나에게 온 지금 새 상품과 같은 상태라면 ‘신상’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이다.
 1차 시장보다 핫해진 중고 시장과 N차 신상에 대해 알아보자. 📺

글 한승희

중고 거래 활성화로 주목받고 있는 안전 거래



중고 거래 자판기

대면 거래는 불편하고 택배로 받기는 불안했는데
 중고 거래용 자판기가 있다니 정말 편리해!”



리셀 마켓

“판매자를 신뢰하기 어려워서 걱정이었는데,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직접 검수를 해준다니 안심이야!”

과거와 미래를 아우르는 중고 거래!



동묘 구제시장

1980년 말 조성되기 시작한 동묘 구제시장은
 오늘날 우리나라 모든 세대뿐만 아니라
 외국인 손님까지 끌어모으며 중고 거래 열풍을
 보여주고 있다.



세컨슈머 (Second+Consumer)

‘두 번째’와 ‘소비자’를 합친 단어로,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한 소비를 지향하는
 소비자들을 지칭한다.

건강을 챙기는 당신에게 추천!

‘오운완’ 챌린지



멋진 몸매와 건강을 위해서는 식단 관리도 중요하지만, 운동이 빠진다면 목표를 제대로 달성할 수 없다.

나 자신을 위해 부지런한 삶을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바로 운동을 꾸준히 한다는 것이다.

매일 스스로가 정한 만큼의 운동량을 해낸 사람들이 외치는 ‘오운완!’ 얼핏 보면 사람 이름 같기도 한

‘오운완’은 이미 SNS상에서 많은 사람이 해시태그로 사용하고 있는 단어다.

그 뜻이 무엇인지 대화로 알아보자. [tv](#)

글 한승희



#오늘 운동 완료



나 요즘 운동하기가 너무 싫어 :(

한동안 열심히 했었잖아! 무슨 일 있어?



몸무게 변화도 없고 눈에 보이는 게 없다 보니
성취감이 떨어져서 그런가 봐.

어떤 마음인지 알 것 같아.
그럼 나랑 **오운완** 챌린지 시작할래?



오운완 챌린지가 뭐야?

오늘 운동 완료 챌린지야!
매일 하루치 운동 후 인증샷을 서로 보내주는 거지.



오, 그렇구나!
서로 자극도 되고, 격려도 되고 좋겠다!

그렇지? 내일부터 시작하자!



좋아! 내일 멋진 **오운완** 인증샷 기대해~



사학연금(TP) 경영 정보

2023년 6월 말 기준

1. 대상 기관 및 교직원, 연금수급자 현황

· 학교기관 수 현황

(단위 : 기관 수)

구 분	학교기관 수	
2023년 6월 30일 기준	유 치 원	3,113
	초·중·고	1,717
	대학교 이상	739
	소 계	5,569

· 교직원 현황

(단위 : 명)

구 분	교직원	
2023년 6월 30일 기준	유 치 원	33,483
	초·중·고	55,443
	대학교 이상	245,822
	소 계	334,748

· 연금수급자 : 111,740명(평균연금월액 294만 원)

(단위 : 명)

구 분	연금수급자 수	
2023년 6월 30일 기준	퇴직연금	98,115
	유족연금	10,967
	장해, 연계, 분할 연금	2,658
	소 계	111,740

2. 자산 운용 현황

(단위 : 억 원, %)

구 분	금 액	구 성 비	
2023년 6월 30일 기준	유가증권	233,181	88.9
	대 여	22,394	8.5
	유형자산	4,002	1.5
	유동자산 등	2,820	1.1
	소 계	262,397	100

3. 금융자산 운용 현황

(단위 : 억 원, %)

구 분	금 액	수 익 률	
2023년 6월 30일 기준	채 권	76,003	3.81
	주 식	82,252	16.16
	대체투자	54,843	4.62
	현금성	3,791	1.96
	소 계	216,889	8.76

주 1) 운용규모 : 월말 장부가

2) 수 익 률 : 시간가중수익률

이벤트는 월간 <사학연금> 웹진에서 더 쉽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웹진에서만 즐기는 이벤트!

- ① 알쏭달쏭 빈칸 퀴즈에 참여해주세요.
- ② 월간 <사학연금>의 칼럼을 읽고 감상평을 보내주세요.

참여방법: 웹진 접속 후 메인 하단 EVENT 코너 클릭!

참여기간: 2023년 9월 8일(금)까지



월간 <사학연금>은 독자들의 참여로 만들어집니다!

(9월 8일 마감)

코너명	코너 소개	응모 방법	독자 선물
만남 (인터뷰)	<p>월별 테마에 맞는 사학가족을 찾습니다. 10월호 테마-에이브러햄 링컨</p> <p>10월에는 지방자치의 날이 있는 달입니다. 민주주의의 상징이자 자치단체가 행정사무를 자주적으로 처리하는 정치제도인 지방자치. 언제나 우리의 삶과 연관되어 있는 지방자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실 사학가족을 소개해주세요.</p>	추천 인물과 이유를 연락처와 함께 웹진 또는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사진 인화 및 탁상용 액자
짓다	<p>사학가족이 직접 쓴 시 또는 수필을 소개합니다. *내용과 주제는 자유</p>	한글 파일 형태로 원고지 10매 이내 (10포인트 기준 A4 1장)로 작성하여 웹진 또는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문화상품권 (모바일)
인생 책	<p>추천 도서를 소개합니다. 해당 도서를 읽으면 좋을 만한 사학가족을 추천해주세요. 해당 도서를 보내드립니다.</p>	추천 인물과 이유를 연락처와 함께 웹진 또는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도서
웹진 이벤트	<p>1. 빈칸 채우기 2. 독자의견</p>	웹진에서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스타벅스 커피 기프트콘

이벤트 참여 방법

🌐 이메일 magazine@tp.or.kr

*독자 선물 제공에 필요한 성함, 생년월일, 연락처를 꼭 적어주세요.

*선물 발송일: 해당 월(기교 글이 게재된 달) <사학연금> 발행 후 15일 이내로 발송됩니다.

응모기간
2023년
9월 8일(금)



사학연금 전자도서관

도서관에서 종이책을 대출하고 반납하듯이 언제 어디서나 '사학연금 전자도서관'에서 전자책을 즉시 대출한 후 스마트폰, PC 등 다양한 기기로 전자책을 읽을 수 있습니다.



* 전자책 보유 현황

2023년 8월 신간 입고 전자책 268종 416권 추가

전체 서비스 전자책 6,634종 29,035권 보유

* 전자책 이용 규정

회원분류	콘텐츠종류	대출가능권수	대출기간	연장횟수	예약가능권수
일반	전자책	5권	7일	1회	2권

* 스마트폰 앱 설치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에서 '에스24 전자도서관(리뉴얼)' 설치



ANDROID



iOS

* 전자도서관 이용 방법

공단 홈페이지 제휴복지서비스 로그인 후 화면 상단의 '전자도서관'에 들어가 도서 대출 후 '내서재'에서 확인 합니다.

사학연금 (TEACHERS' PENSION) QR코드 안내



웹진



유튜브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알림톡

알림톡을 친구 추가하시면
다양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의
소식을 빠르게 접할 수 있습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연금dream 콜센터 전국 어디서나 1588-4110

본사(나주)

(58326) 전라남도 나주시
문화로 245 (빛가람동)

☎ 061) 338-0000

서울센터

(0732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7층
(여의도동, 전경련회관)

☎ 02) 769-4403~4,4408

대전센터

(35209)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809사학연금회관
14층 (둔산동)

☎ 042) 538-2371~2375

부산센터

(47358)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일로 181
사학연금회관, 7층 (범천동)

☎ 051) 637-6015~6017

서울·대전·부산센터에서는 근로자 휴게시간 보장을 통한 양질의 상담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2023년 1월 1일부터 점심시간 휴무제 (12:00 ~ 13:00)를 운영하고 있으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